



꿀벌이 사라진다...국내양봉 농가 철수 움직임

꿀벌 개체수가 급감할 위기에 빠졌다. 꿀 생산이 지독한 흉작을 거듭하면서 양봉농가들이 대거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농약 사용도 꿀벌 감소의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미국 50개주 중 27개주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 미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꿀벌 수 급감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꿀 생산량 급감, 양봉농가 철수 러시

30년째 이동양봉업을 하고 있는 황모(49)씨는 지난해 2주밖에 꿀을 채취하지 못했다. 기온 상승에 따른 생태계 교란으로 개화시기가 전국적으로 비슷해지면서 꿀 채취 가능일수가 확연히 줄었기 때문이다. 아카시아 꽃이 대구에서 5월10일에 피면 충청도에서는 13일, 임진각에서는 15일에 피는 식이다. 양봉업을 시작하던 무렵에는 매년 평균 25일 정도 꿀을 채집했다. 황씨는 “예전에는 벌통 200개로 일년에 300kg짜리 드럼 30~40통은 거뜰했는데 최근에는 10통도 힘들다”며 “남부지방에서 꿀을 다 채취하기도 전에 충청도에 꽃이 피어 남부에서 채취를 끝내지 못하고 이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건 국내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카시나무의 ‘황화현상(나뭇잎이 누렇게 변해버리는 현상)’이다. 황화로 꽃 하나당 꿀 생산량이 현격히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아카시나무가 기온 이상 등 스트레스 환경에 빈번히 노출되면서 생리적으로 쇠퇴한 결과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추정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아카시나무 황화피해 원인 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5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3.76℃로 1960년대(1961~1970년) 12.74℃에 비해 1℃ 가량 상승했다. 온난화 현상으로 봄·가을의 실종, 강수량 부족 등의 이상 기온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꿀 생산량은 1만9654톤으로 2003년 3만353톤에 비해 35% 이상 감소했다.

꿀벌 줄어드나

현재 국내 벌통수는 약 200만개로 포화상태다. IMF 경제위기 이후 너도나도 양봉업에 뛰어들 결과다. 하지만 올해 이미 20~30%의 양봉농가들이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봉업계에서는 5년내 70% 정도의 양봉농가가 사업을 접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무분별한 농약 사용도 꿀벌 감소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과수농가들은 개화기 때 과일을 숙아내는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맹독성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이로 인해 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전남 나주에서는 농약 때문에 3000여개 벌통이 생산기능을 잃기도 했다. 양봉업계에서는 매년 전체 벌통의 15% 정도가 농약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년 내에 꿀벌이 5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꿀벌 줄면 재앙

꿀벌은 꿀을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생태계에 큰 이로운을 주는 곤충이다. 1983년 미국 곤충학자 레빈(Levi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꿀벌의 화분매개에 의한 효과는 과실생산이 33억 달러, 종자와 건초생산이 84억 달러, 육류와 우유 등 낙농제품의 간접생산이 71억 달러로 미국에서 얻어지는 전체 양봉산물 1억3000만 달러의 143배에 이르렀다.

사과·딸기·호박·오이 등 우리가 먹는 작물의 90%가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꿀벌이 일정 숫자 아래로 내려가면 목초 생산이 줄어 육류·우유 생산도 타격을 입는다. 꿀벌이 줄면 수입해야 하지만 외래 병해충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1994년 중국에서 수입된 꿀벌이 ‘중국 가시응애’라는 질병을 들여오기도 했다. 최선책은 적절한 꿀벌 숫자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우리나라 생태계에 필요한 최소 꿀벌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대 이승환 교수는 “정부차원에서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꿀벌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